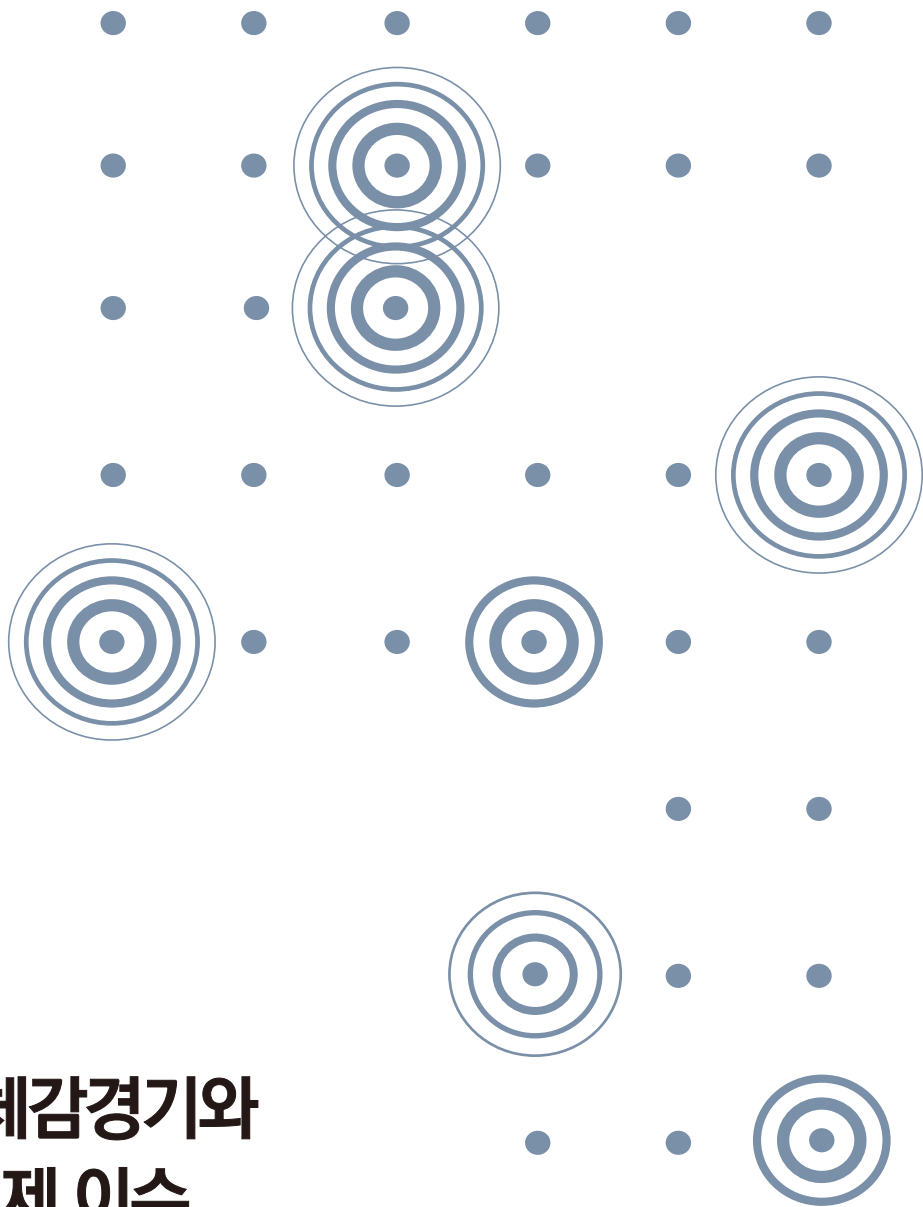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63호 2022. 12. 26



—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3년 주요 경제 이슈**

오은주  
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63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3년 주요 경제 이슈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3년 주요 경제 이슈

오은주 연구위원  
02-2149-1037  
ejoh@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23년 주요 경제 이슈	18
부록: 2022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21

## 요약

---

### 서울 서비스업생산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2022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2022년 10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86.8로 나타났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124.7을 기록했다.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지만 전 분기보다 상승 폭이 크게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0.0%로 보합을 나타냈다. 2022년 10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1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7% 증가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8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2% 감소했다.

###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 하락, 전 분기 대비 낙폭은 크게 감소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2년 4/4분기 89.1로 전 분기 대비 1.6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 분기 대비 낙폭은 크게 감소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3.2로 전 분기보다 0.4p 하락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도 2.2p 내린 91.5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 또한 전 분기 대비 1.5p 하락하며 56.4를 기록했고, 「미래경기판단지수」도 3.9p 내려 3분기 연속 하락하며 68.5를 나타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도 109.0으로 전 분기 대비 3.3p 하락했고, 「미래소비지출지수」 역시 전 분기 대비 3.4p 내린 83.9를 기록했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 또한 전 분기보다 1.8p 하락한 71.1로 조사됐고, 「주택 구입태도지수」만이 전 분기 대비 6.1p 상승한 66.1을 나타냈다.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도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물가예상지수」도 전 분기 대비 3.4p 내린 142.0을 기록했다.

### 서울시민은 2023년 경제 이슈로 '생활물가'와 '가계 빚 증가'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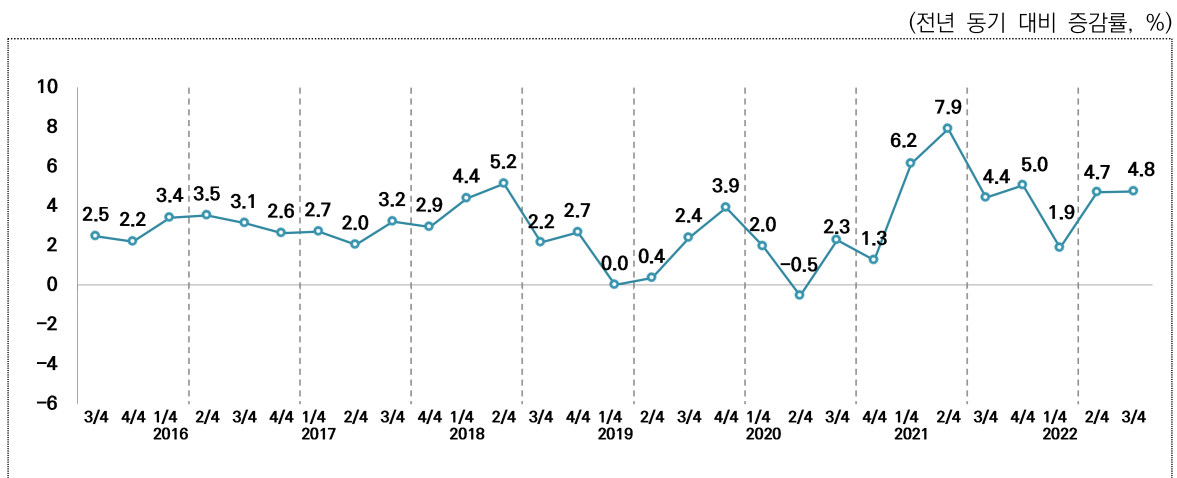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가 17.6%(1순위 기준)를 차지하며 2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작년 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12.8%), '국내 금리 변동'(8.5%),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8%),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12개 경제 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 모두 기준치(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개선 전망 점수가 가장 높은 경제 이슈는 '청년실업 및 고용'(78.5점)이었으며, 그다음은 '가계소득'(72.3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71.2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52.8점으로 작년에 이어 개선이 가장 힘들 것으로 보았다.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 서울 서비스업생산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 2022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

- 2022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오른 123.3을 기록
  - 개별 업종별로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3.1%)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39.1%), ‘운수 및 창고업’ (26.5%) 등의 순으로 증가
  - ‘부동산업’(-12.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1%), ‘금융 및 보험업’ (-1.5%) 등 3개 업종만 하락
- 2022년 10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86.8로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
  - 2022년 10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2.6% 크게 감소한 86.8을 나타내며 최근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 2022년 10월 「제조업생산지수」의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도 -5.0%를 기록하며 2022년 8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감소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2022년 8월 -0.5% → 9월 -1.8% → 10월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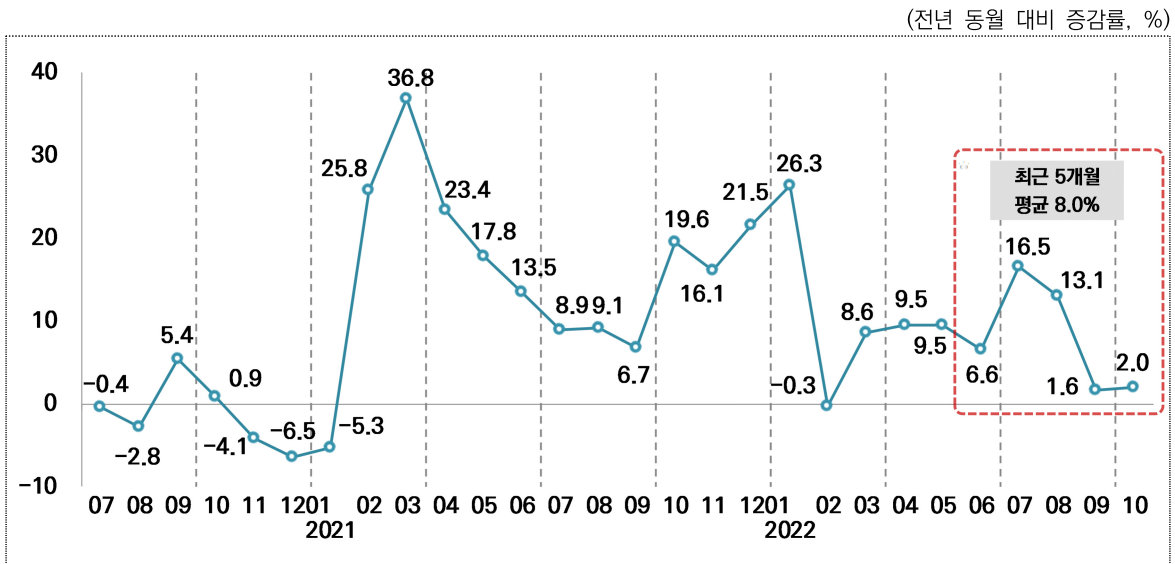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sup>1)</sup>

1) 2021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음.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

- 2022년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sup>2)</sup>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
  -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24.7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으나 전 분기 7월의 상승률인 16.5%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크게 감소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8.0%를 기록
- 부문별로 보면, 2022년 10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0.0%로 보합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42.2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1.4%의 높은 수준을 기록
  -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93.4로 전년 동월 대비 0.0%에 그쳤고, 최근 5개월간 평균 증감률은 0.9% 수준
  - 판매액지수 중 유일하게 기준치(100) 이하인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올해 8월과 9월에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10월 들어 다시 기준치 이하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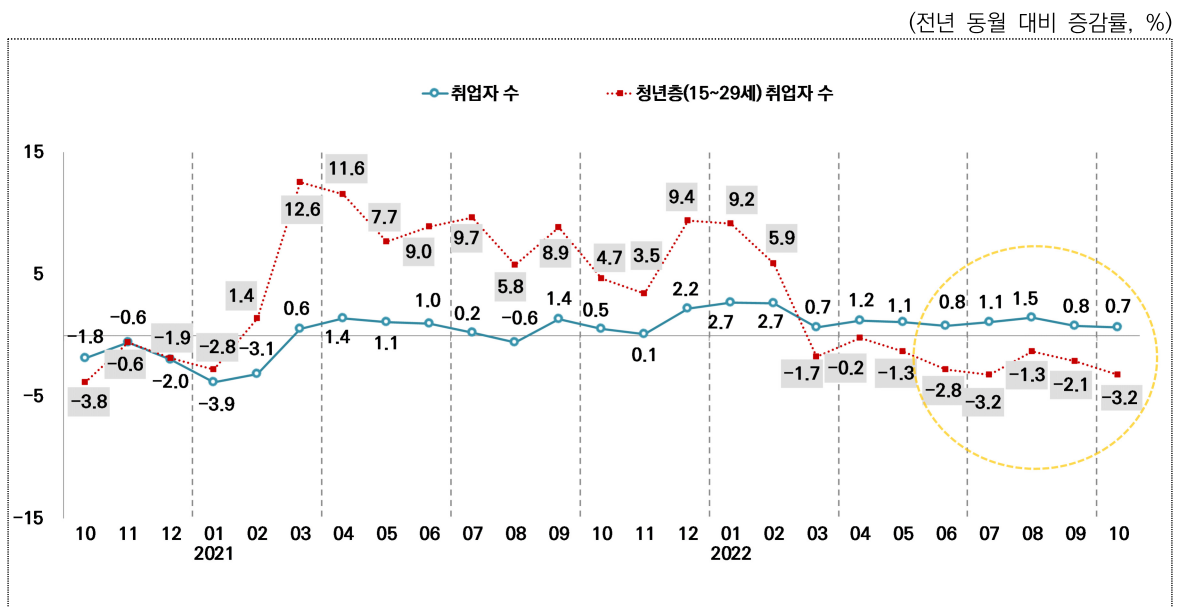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 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음

###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 수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2022년 10월 서울의 「취업자 수」<sup>3)</sup>는 51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507만 4천 명)보다 0.7%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0.7% 증가했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0%를 기록
- 2022년 10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9만 6천 명)보다 3.2% 감소한 86만 7천 명으로 조사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올해 3월(-1.7%)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도 마이너스(-2.5%)를 기록
- 전월 대비 2022년 10월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분만큼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2022년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510만 7천 명으로 전월 513만 명보다 2만 3천 명 감소 하였으며, 전월 대비 10월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체 「취업자 수」 감소분과 동일한 2만 3천 명이 감소해 전체 「취업자 수」 중 「청년층 취업자 수」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 9월 89만 명 → 10월 86만 7천 명(2만 3천 명 감소)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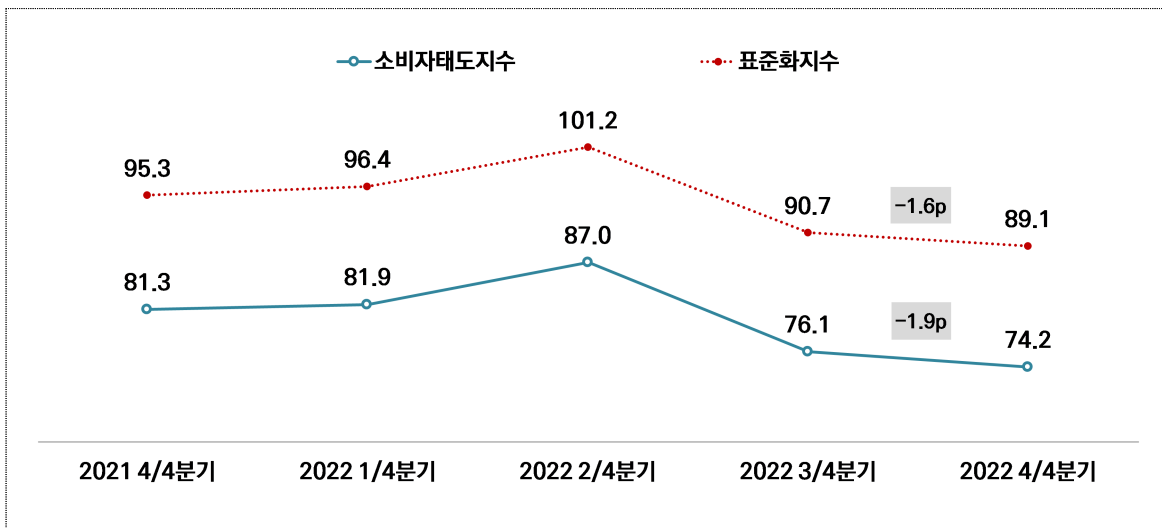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 하락, 전 분기 대비 낙폭은 크게 감소

####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p 하락한 89.1을 기록

- 2022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sup>4)</sup> 기준 89.1로 전 분기 대비 1.6p 하락
  - 「소비자태도지수」의 표준화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0.6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대별로는 대부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 분기 대비 3.8p 내려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4/4분기 이후 내년, 복합적 경제위기가 지속으로 당분간 기준치(100)를 넘기 힘들 것으로 전망
  - 「소비자태도지수」의 대체적 추세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 및 경기상황, 고용지표 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
  - 고물가, 경기둔화, 고용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치(10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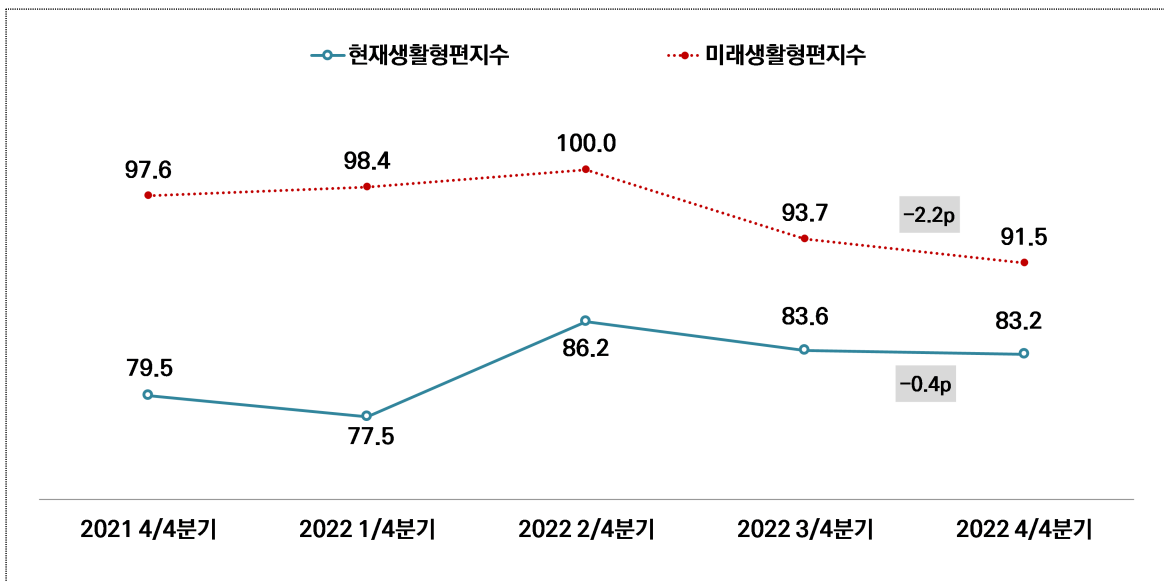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 현재생활형편지수·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전 분기 대비 낙폭은 축소

- 2022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낙폭은 축소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3.2로 전 분기보다 0.4p 하락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2p 내린 91.5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15.4p)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3,600~4,800만 원 미만(-11.5p)과 연 가구소득 2,400만 원 미만(-11.3p) 가구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로는 40대(-4.9p)에서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30대 이하(-6.3p)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1년 후 가구 생활 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sup>5)</sup> 비중 전 분기 대비 상승
  - 1년 후 가구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물가 상승’이 44.9%(전 분기 4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가계소득 감소’(23.1%), ‘가계부채 증가’(11.7%),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7.6%)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 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물가 상승’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연 가구소득 2,400만 원 미만 가구(54.1%)에서는 ‘물가 상승’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물가 상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50대와 60대는 ‘가계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가계소득 감소’ 비중: 30대 이하 16.4%, 40대 18.2%, 50대 29.8%, 60대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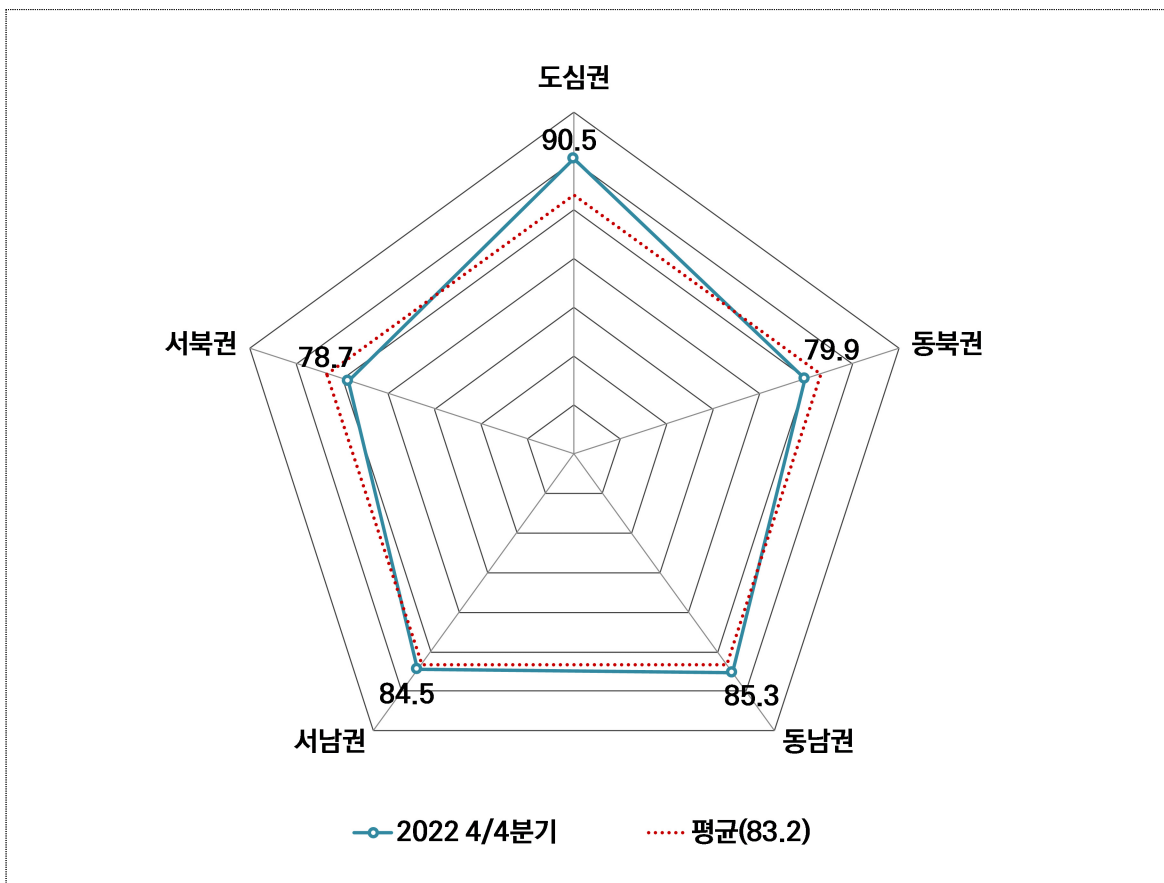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5) 서울시민의 21.0%(252명)는 1년 후 ‘미래생활형편 호전’을 전망했고 32.8%(394명)는 ‘미래생활형편 악화’를 전망한 가운데, 전 분기 대비 미래생활형편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미래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이 90대, 서북권 70대로 권역별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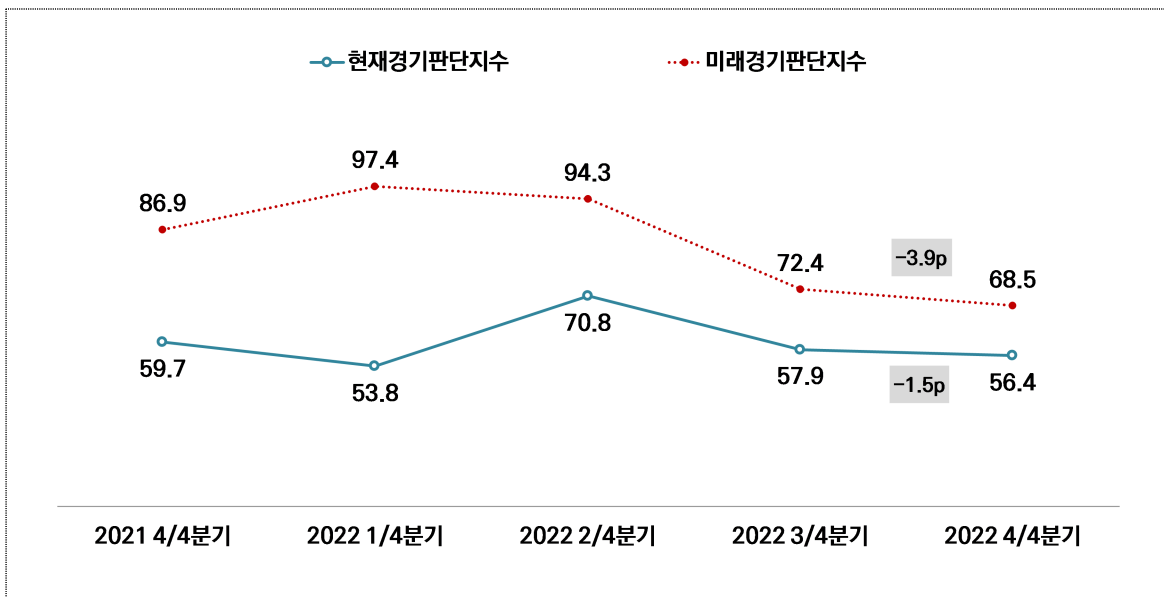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이 가장 높고, 서북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도심권(90.5)이 유일하게 9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동남권(85.3), 서남권(84.5), 동북권(79.9), 서북권(78.7) 순으로 조사
- 2022년 4/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만 전 분기 대비 상승
  - 도심권만이 3/4분기 대비 3.2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며 90대를 기록
  - 동북권(0.0p)은 보합을 나타냈지만 동남권과 서북권은 각각 1.6p씩 감소했고, 서남권도 0.5p 하락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 현재경기판단지수·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미래경기판단지수 하락 폭 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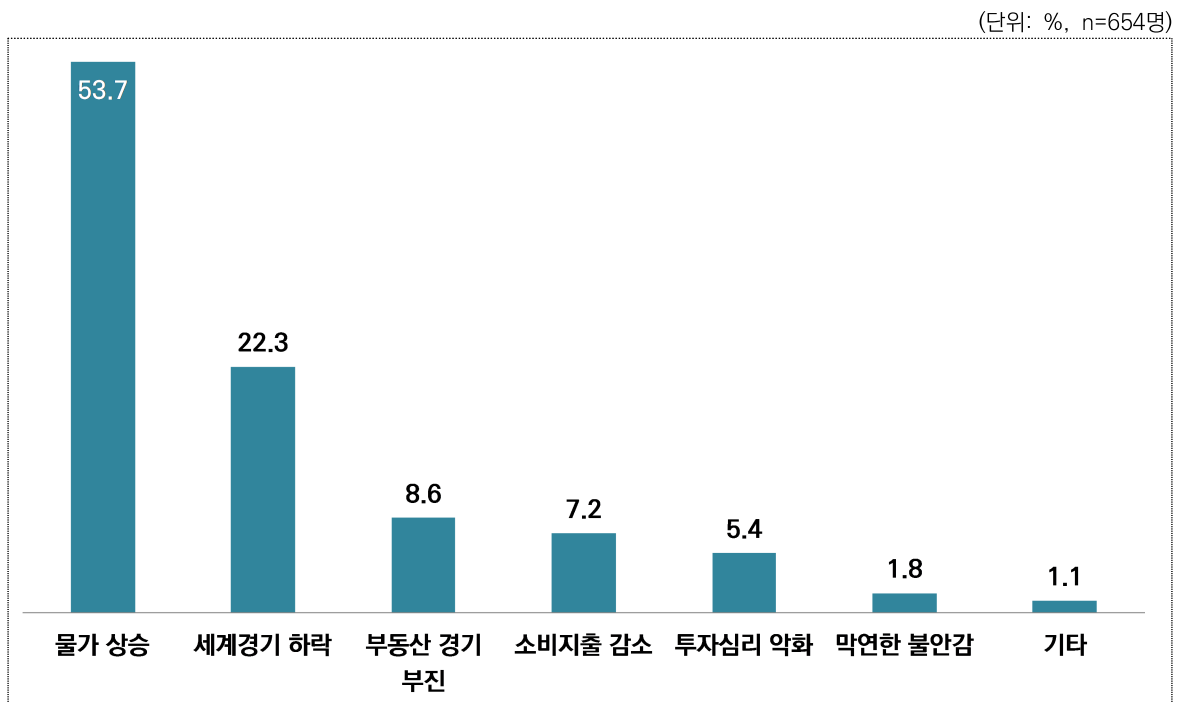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5p 하락
  - 2022년 4/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5p 내린 56.4를 기록하며 50대를 유지
  - 연 가구소득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대부분 가구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2,400만 원 미만 (-10.4p)과 3,600~4,800만 원 미만(-3.6p) 가구는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0대만이 전 분기 대비 0.4p 소폭 상승하였고,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50대(-3.9p)의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22년 4/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 전 분기 대비 3.9p 내려 60대로 하락
  - 2022년 4/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9p 내려 3분기 연속 하락하며 68.5를 기록
  - 모든 소득계층의 「미래경기판단지수」가 하락했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8.3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2.4p)와 60대(1.9p)는 소폭 상승했지만 30대 이하(-8.0p)와 50대(-7.5p)는 크게 하락



[그림 기]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지난 분기에 이어 ‘물가 상승’을 지목<sup>6)</sup>**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했지만 전 분기 대비 비중 감소
  - ‘물가 상승’이 53.7%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세계경기 하락’(22.3%), ‘부동산 경기 부진’(8.6%) 순으로 조사
  - ‘물가 상승’은 3/4분기 65.1%에서 53.7%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세계경기 하락’은 4.3%p 올랐고, ‘부동산 경기 부진’도 4.6%p 상승
-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소득수준과 연령대 모두에서 ‘물가 상승’을 선택
  - 연 가구소득별로는 전 소득계층에서 ‘물가 상승’과 ‘세계경기 하락’을 향후 경기 악화의 주된 이유로 지목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물가 상승’과 ‘세계경기 하락’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 연속 5%대에 머물던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그 오름세가 꺾이며 2022년 11월 4.7%를 기록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7월 5.5% → 8월 5.1% → 9월 5.0% → 10월 5.1% → 11월 4.7%<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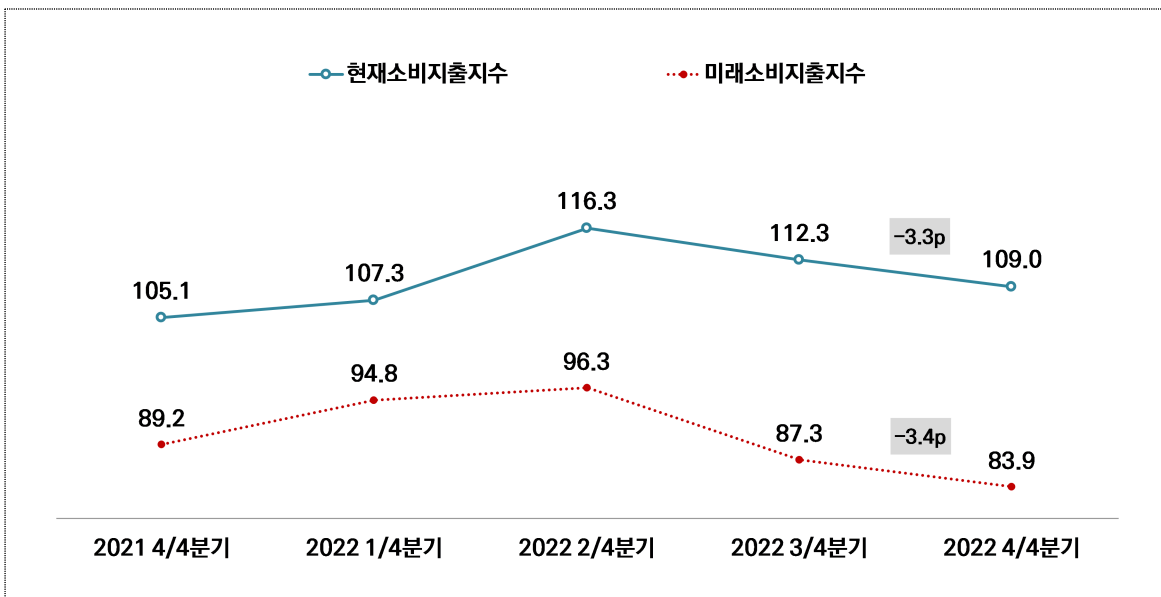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6) 서울시민의 11.3%(136명)는 1년 후 '경기 호전'을 전망했고, 54.5%(654명)는 '경기 악화'를 전망한 가운데 전 분기 대비 미래경기판단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미래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7)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재인용)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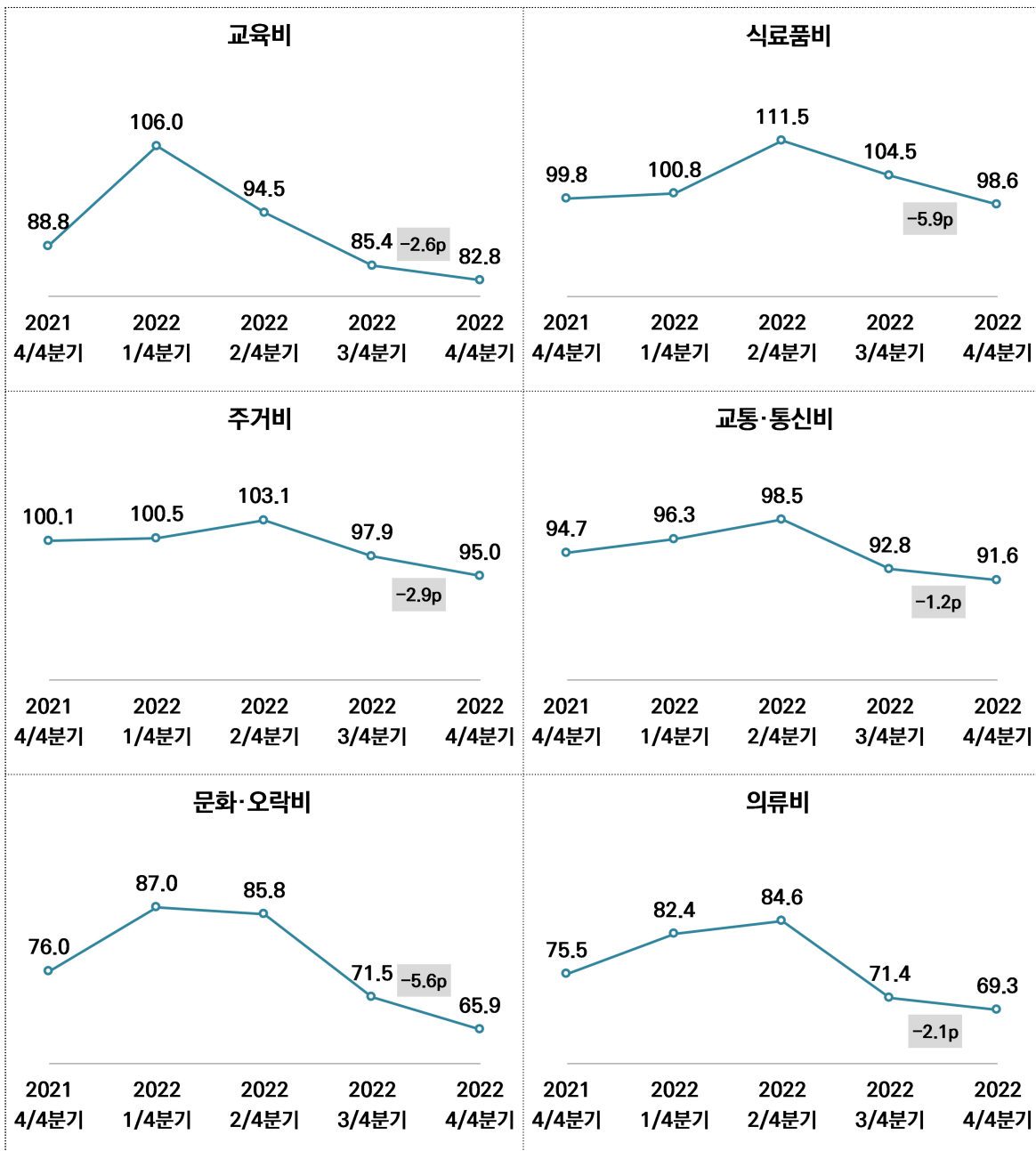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3.3p 하락
  - 2022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3.3p 내린 109.0을 나타내며 하락 지속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이 하락한 가운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가 9.6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40대의 하락 폭이 8.4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22년 4/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3.9로 전 분기 대비 3.4p 하락
  - 2022년 4/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분기 연속 하락하며 83.9를 기록했지만 전 분기 대비 낙폭은 감소
  - 연 가구소득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의 하락 폭이 7.1p로 가장 크게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0.2p)와 60대(0.2p)가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40대(-6.5p)와 30대 이하(-5.4%)는 하락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미래소비지출지수의 모든 품목도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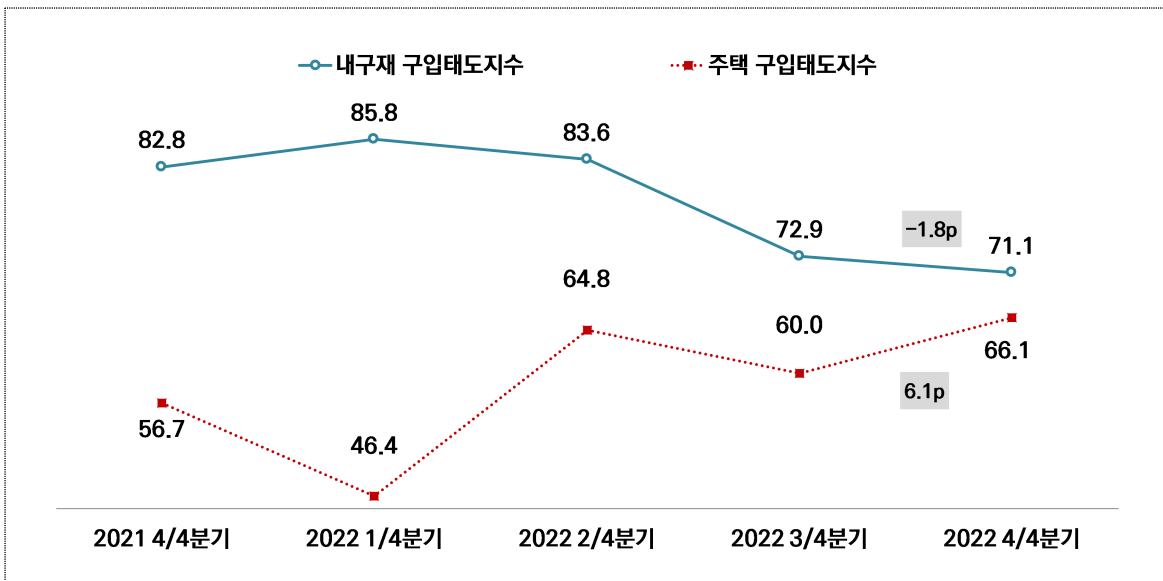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 품목 중 ‘식료품비’와 ‘문화·오락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식료품비’와 ‘문화·오락비’의 지수가 전 분기 대비 각각 5.9p, 5.6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가 가장 높고, ‘문화·오락비’ 지수가 가장 저조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가 98.6으로 가장 높은 반면, ‘문화·오락비’가 65.9로 가장 낮게 조사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는 하락 지속, 주택 구입의사는 상승 반등

- 2022년 4/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8p 하락한 71.1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7.8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2.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30대 이하(-2.2p)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감소
- 2022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6.1로 전 분기 대비 6.1p 상승
  - 2022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6.1p 상승한 66.1을 기록
  - 연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모든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운데 그중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13.5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 분기 대비 8.6p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
  - 2022년 10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02.0으로 최근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2022년 6월 103.7 → 7월 103.6 → 8월 103.3 → 9월 102.8 → 10월 102.0<sup>8)9)</sup>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8) 2021년 9월 기준,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의 기준시점(단위)이 기존 '2017.11=100'에서 '2021.06=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수의 흐름과 변동률은 동일함

9)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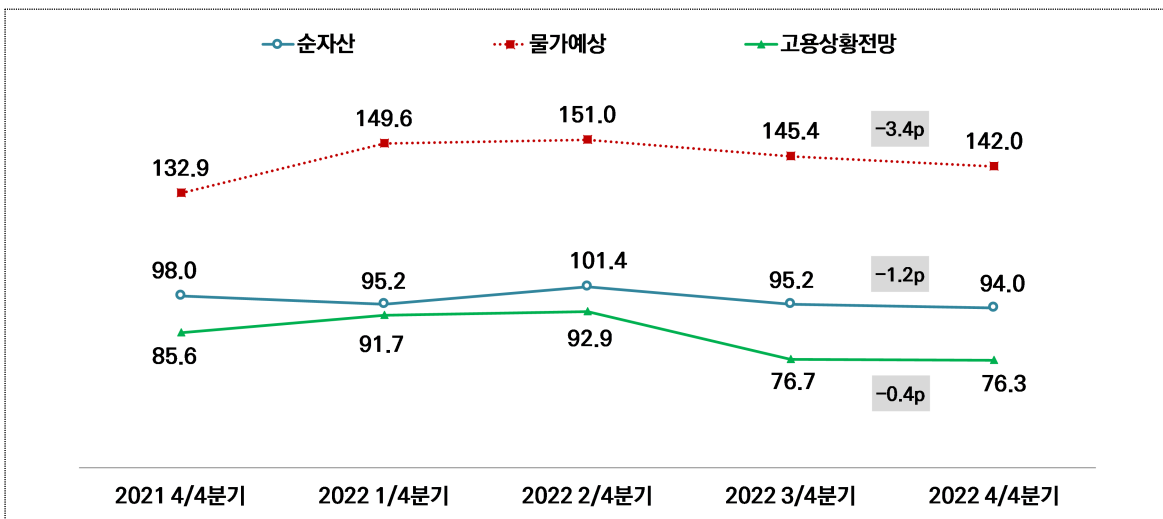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대부분 상승
  -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가장 높은 권역은 도심권(67.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권역은 서북권(62.8)으로 조사
  - 서울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서북권(-0.5p)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심권이 12.7p로 가장 크게 상승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모두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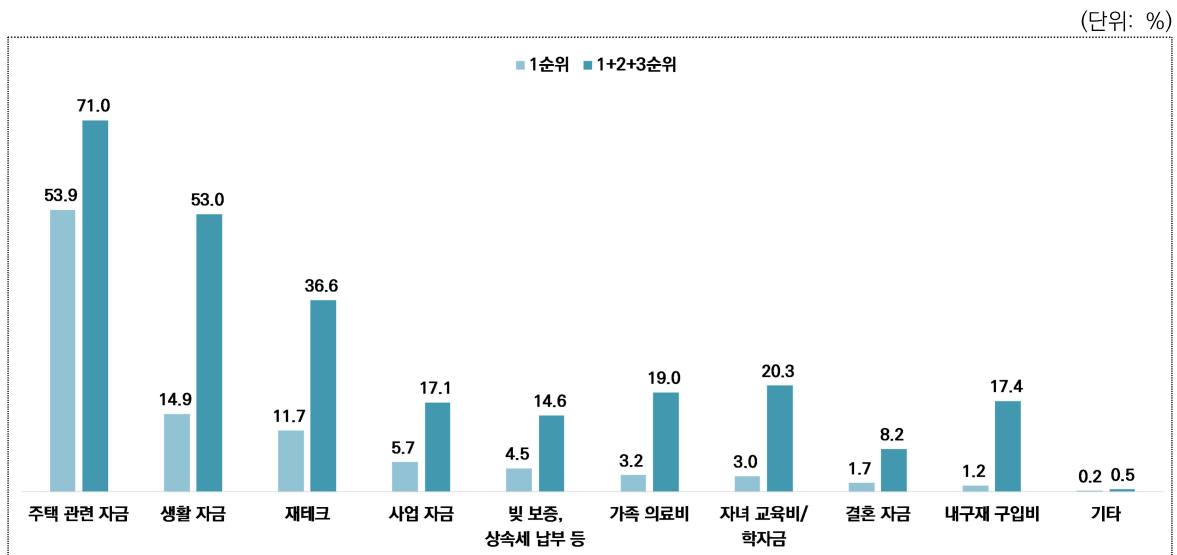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4.0으로 전 분기보다 1.2p 하락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채가 늘었다’(20.9%), ‘지출이 늘었다’(19.1%), ‘금융자산이 줄었다’(18.5%) 등의 순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소득이 줄었다’가 가장 높았지만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금융자산이 줄었다’(26.9%)가, 7,200만 원 이상 가구는 ‘부동산이 줄었다’(28.4%)가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는 ‘지출이 늘었다’(24.1%)가, 50대는 ‘부채가 늘었다’(25.0%)가 가장 높게 조사
- 2022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42.0으로 전 분기 대비 3.4p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전 분기 대비 3.4p 내린 142.0을 나타내며 하락세 지속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물가예상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4,800~6,000만 원 이상 가구가 전 분기보다 16.2p 내리며 가장 크게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7.0p 내려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
- 2022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0.4p 내린 76.3을 기록하며 하락 폭 축소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0.4p 내려 76.3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그 폭은 전 분기(-16.2p)보다 크게 감소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5.6p)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반면,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 분기보다 8.9p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 분기 대비 8.1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40대는 3.5p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2022년 4/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49.7%로 나타나 전 분기 대비 1.3%p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400~3,6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5.6%로 가장 높게 조사
  - 모든 연령대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0대가 54.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50대(50.4%), 30대 이하(49.8%), 60대(43.7%)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평균 비율은 20.6%로 전 분기 (20.3%) 대비 0.3%p 소폭 증가<sup>10)</sup>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5.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 (31.7%), ‘상환안 함’(2.5%)의 순으로 나타나 ‘원리금 상환’이 전 분기 대비 0.7%p 소폭 상승
- 가계부채 주 사용용도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 다음으로 ‘재테크’ 순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53.9%)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4.9%), ‘재테크’(11.7%), ‘사업 자금’(5.7%)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생활 자금’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7,200만 원 이상 가구(60.9%)의 ‘주택 관련 자금’의 비중은 60%를 상회
  -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 역시 1순위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택 관련 자금’(71.0%), ‘생활 자금’(53.0%), ‘재테크’(36.6%)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다음은 ‘자녀 교육비/학자금’(20.3%), ‘가족 의료비’(19.0%) 등이 ‘사업 자금’(17.1%)보다 더 높게 조사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10)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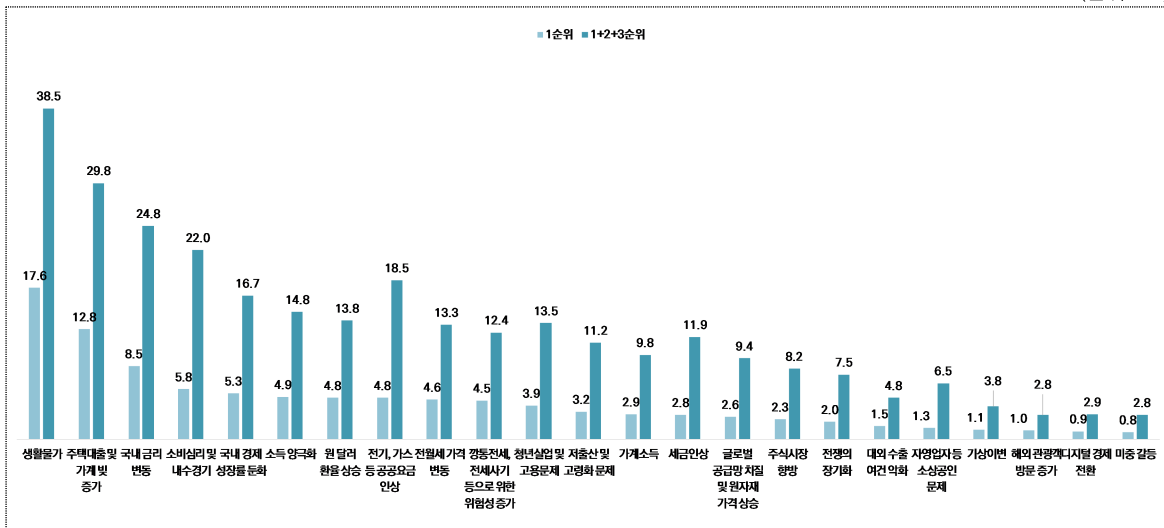
###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23년 주요 경제 이슈

#### Ⅰ 서울시민은 2023년 경제 이슈로 ‘생활물가’와 ‘가계 빚 증가’ 꼽아

서울시민, ‘생활물가’에 이어 ‘가계 빚 증가’, ‘국내 금리 변동’ 등을 내년도 경제 이슈로 선정

- 내년 경제 이슈로 1순위 및 1~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 모두 ‘생활물가’가 가장 높게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생활물가’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작년 대비 1.6%p 하락
  - 그다음은 작년 순위<sup>11)</sup>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12.8%), ‘국내 금리 변동’(8.5%),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8%),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5.3%)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합계 결과도 ‘생활물가’(38.5%)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29.8%), ‘국내 금리 변동’(24.8%),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22.0%) 순
    - 합계 결과에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18.5%)도 다섯 번째로 높게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연 가구소득과 가구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생활물가’가 가장 높았으나 60대에서는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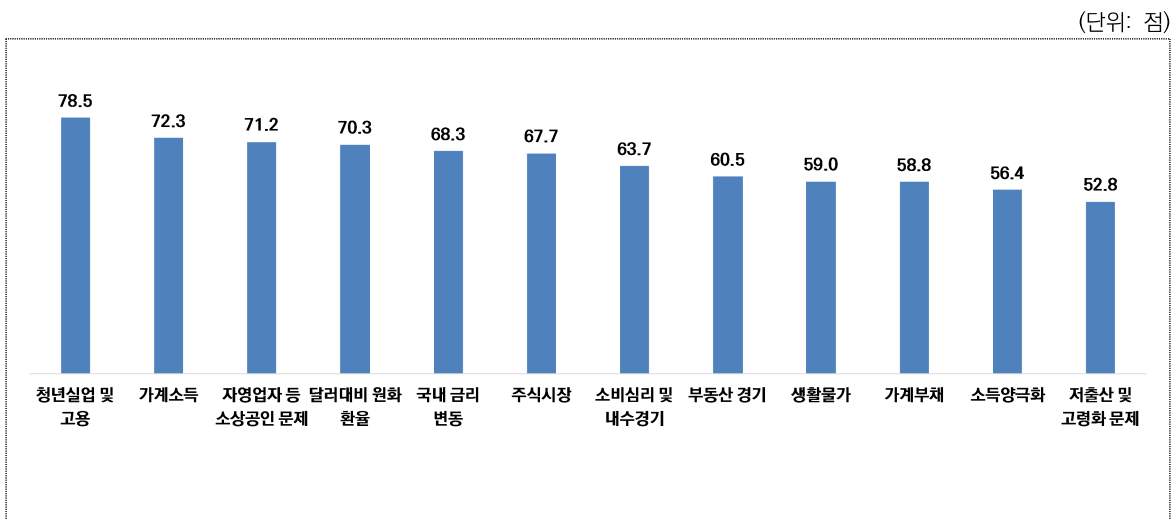
[그림 15] 2023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11) 작년 순위(1순위 기준)는 ‘생활물가’가 19.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9.8%), ‘한국 대선 결과’(8.3%), ‘소득 양극화’(6.1%),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7%) 등의 순으로 조사

##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인식

-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12개 경제 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가 모두 기준치(100)<sup>12)</sup>보다도 크게 낮게 조사
  - 개선 전망 점수가 가장 높은 경제 이슈는 ‘청년실업 및 고용’(78.5점)이었으며, 그다음은 ‘가계소득’(72.3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71.2점), ‘달러 대비 원화 환율’(70.3점), ‘국내 금리 변동’(68.3점), ‘주식시장’(67.7점) 등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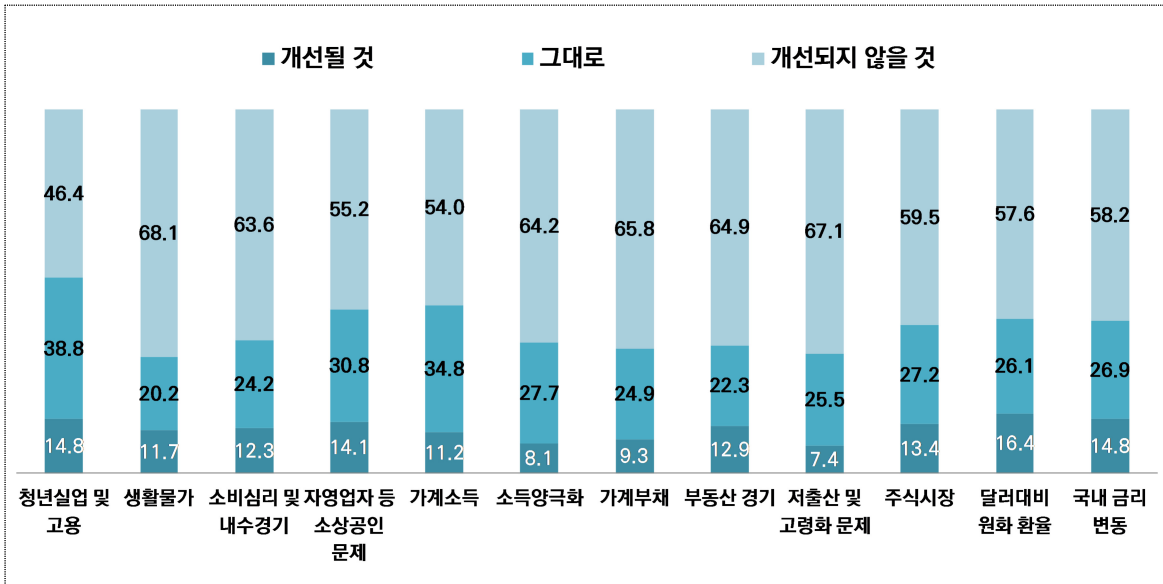


[그림 16] 2023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점수

- 개선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고,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로 조사
  -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개선될 것으로 본 응답 비율은 16.4%로 가장 높았으나 10%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그다음은 ‘청년실업 및 고용’(14.8%)과 ‘국내 금리 변동’(14.8%),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14.1%), ‘주식시장’(13.4%) 등의 순으로 조사
  - 반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생활물가’가 68.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67.1%), ‘가계부채’(65.8%), ‘부동산 경기’(64.9%) 등의 순으로 조사

12)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점수는 총 200점 만점 기준으로 ‘매우 악화될 것’ 0점, ‘다소 악화될 것’ 50점, ‘그대로’ 100점, ‘약간 개선될 것’ 150점, ‘매우 개선될 것’ 200점으로 계산

(단위: %)



[그림 17] 2023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 부록: 2022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22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6.5로 전월 대비 2.3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1년 4/4분기	95.3	79.5	97.6	59.7	86.9	82.8	56.7
2022년 1/4분기	96.4	77.5	98.4	53.8	97.4	85.8	46.4
2022년 2/4분기	101.2	86.2	100.0	70.8	94.3	83.6	64.8
2022년 3/4분기	90.7	83.6	93.7	57.9	72.4	72.9	60.0
2022년 4/4분기	89.1	83.2	91.5	56.4	68.5	71.1	66.1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1년 4/4분기	105.1	89.2	98.0	85.6	132.9
2022년 1/4분기	107.3	94.8	95.2	91.7	149.6
2022년 2/4분기	116.3	96.3	101.4	92.9	151.0
2022년 3/4분기	112.3	87.3	95.2	76.7	145.4
2022년 4/4분기	109.0	83.9	94.0	76.3	142.0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2\%$ p임 (2022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22년 11월 1일~11월 14일)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